

●●● 양일선 대한영양사협회장

집단급식소 등을 통한 국내양계산물 소비 활성화 기대



지난 1969년 대한영양사협회가 발족된 이후 금년으로 3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영양사직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큰 뜻으로 창립된 대한영양사협회는 이후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회관건립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금년 2월 19일 마침내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회관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본고는 지난 2001년부터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일선 회장(연세대학교 교수)을 만나 양계산물의 소비촉진 방안은 물론 협회 활동사항, 운영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 양일선

대한영양사협회 회장(2001~)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 원장
농림부 중앙농정심의회 위원
농림부 축산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자문위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학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석사) 졸업(1975)
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 박사(1985)

◇ 저서 및 수상

급식경영학 등 다수, 대한영양사회 학술상 대상 수상(2000) 외 다수

양계산업 위해 홍보활동 펼쳐

양일선 회장은 그동안 회관건립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최근 “학생건강증진 심포지엄” 개최는 물론 “몽골학교급식 시찰단”



▲지난 2월 19일 회원들의 힘을 모아 동작구 흑석동에 회관을 마련하여 개관식을 가졌다.

의 방한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정보를 교류, 제공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위한 영양사 특별위생교육이 5월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는 물론, 오는 8월 17~18일에 개최되는 전국영양사 학술대회 및 제12회 식품기기 전시회 준비도 꼼꼼히 챙기는 등 국민 영양과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양회장은 지난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양계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당시 영양사 및 영양관련인들을 통해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닭고기 소비촉진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바 있어 양계인들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분이다.

양회장은 우선 '닭고기는 안전하다'는 팜플렛을 제작하여 양계업 살리기에 나섰다. 특히, '닭고기 안전성 홍보 및 소비촉진 실천 결의대회'와 '전국 닭고기 시식회 행사'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와 기관지인 국민영양을 이용하여 닭고기 안전성 홍보 및 취급방법 등을 소개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와 함께 "매주 수요일은 닭고기 먹는 날" 캠페인을 실

시하면서 양계업계에 큰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다양한 조리법 개발 필요

"양계산물은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제공하는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이제는 집단급식소에 다양한 기기들이 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메뉴의 개발이 따라줄 경우 양계산물의 소비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협회에서도 기관지인 국민영양이나, 인터넷 및 각종 행사를 통해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식단 메뉴에 닭고기와 계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양회장은 언급하였다.

또한 전국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들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최근 안전성과 건강의 화두로 떠오른 '웰빙' 지향의 식문화에 편승해 가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양계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안전성이 높은 양계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대한영양사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송희 국장도 단체급식을 통해 공급되는 식단은



▲영양사학술대회시 우리축산물 홍보관을 마련해 국산 닭고기와 계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다.

한끼에 1,100만명분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식단에 양계산물이 자주 포함될 경우 양계산물의 소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전국영양사 학술대회 준비

대한영양사협회는 그동안 영양사 권익보호, 영양사 전문성 확보, 국민건강증진, 국민의 바른 식문화 창조를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정부 정책사업 협조와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특히, “국민영양” 기관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양계분야에서는 닭고기와 계란의 메뉴를 소개하는 등 홍보에도 앞장을 서고 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오는 8월 17~18일에 롯데

호텔 잠실점에서 전국영양사 학술대회 및 제12회 식품기기 전시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때는 3,500명의 영양사들이 총 참여할 뿐만아니라 각종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양계산물 홍보에 관련단체들이 나서줄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대회부터는 축산물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우리축산물 홍보를 위한 결의대회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홍보캠페인 등을 통하여 우리축산물 소비촉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양계산물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양계협회에서의 관심도 당부하였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지난해부터 우리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회장은 금년에도 농림부와 함께 “한국인의 건강밥상, 품질 좋고 맛있는 우리축산물로!”라는 주제로 외국산 축산물 사용을 자제하고 다양한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물론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를 단체 급식소에 보급하는 방안도 이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지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집단급식소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양계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정리 | 김동진 홍보팀장)